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영환**

1. 머리말

이 논문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¹⁾을 국어학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개역개정』을 국어학적으로 검토하여 잘못 번역되었거나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생각할 만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아 앞으로 수정·간행되는 성경이 훨씬 국어어법에 맞고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어학적인 면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는 장구하다. 1882년에 로스(J. Ross)와 한인 번역자들이 최초의 한글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를 출간한 이후 신약성경의 날권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다 드디어 1911년에 구약이 완역되면서 『성경전서』가 탄생하였다. 『성경전서』의 출간은 한국 기독교의 쾌거요 기독교인 모두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경우 두 차례나 개정을 하며 공인역으로 간행되었으나, 구약의 경우 이러한 개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인역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²⁾ 그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번역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곧장 개정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1938년에 『성경 개역』이 출간되고 이후 1952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바꾼 개역한글판이 나왔다. 그 후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침내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이 번역본이 현대인들에게 고루 사랑을 받기엔 실생활과 동떨어진 옛말이나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표현이 그대로 쓰인 데다 그 동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남대학교에서 마련해 준 연구년 기간에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국어학.

1) 앞으로 이 성경 번역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역개정』이라 줄여 쓸 것이다.

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19. 이하 이 부분은 이 책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안 여러 차례 바뀐 표준어와 국어정서법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번역본을 개정한 『개역개정』을 1998년에 출간하였다.³⁾

지금까지 『개역개정』을 국어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개역개정』의 출간에 즈음하여 발표한 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⁴⁾

도한호(1998)는 『개역』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개정 및 감수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후 개정 감수작업 진행과정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국어학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곳은 ‘남은 과제들’ 부분이다. 그는 어휘를 통일하지 못한 곳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제와 구문에 맞는 현대어로 온전하고 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토로하며, 가로쓰기를 시도한 것은 자랑스럽지만 각종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미진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⁵⁾ 이런 그의 견해는 다음 개정 시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만큼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김정수(1998)는 『개역개정』이 옛말 문체를 보전하면서 일부 어휘와 표현의 현대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일별하고 대체로 현대인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는 것을 바꾸기로 시도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미 부류 가운데 ‘-이더라’를 ‘-이더라’로, ‘-뇨’를 ‘-냐’로, ‘-이니라’를 ‘-이로’로, ‘-신대’를 ‘-시나’로, ‘-이어든’을 ‘-일진대’로, ‘-이로라’를 ‘-이로’로 바꾼 것은 일관성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현대화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국어학의 전문 지식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⁶⁾고 개탄하였다. “언어학적인 오류를 크게 지닌 채로 대폭 개정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나 적절하지 못하며”, “종결어미나 겨우 유지하는 개정판이 『개역』을 대신하기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며”, “개정판의 사이비한 옛 말투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⁷⁾, “『개역개정판』의 균질하지 못한 한국말은 품격이 낮은 피진(pidgin) 언어와 같다.”⁸⁾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국어학자로서의 그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였

3) 이 논문은 『개역개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다른 번역본을 언급하지 않고 소략하게 기술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개역』 이후에도 『공동』, 『새번역신약』, 『표준』, 『공동개정』, 『표준개정』, 『새번역』 등이 줄기차게 출간되었으며, 천주교회에서는 따로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를 펴낸 이후 2005년에 『성경』을 번역·간행하여 이를 가톨릭 공용 성경으로 삼고 있다.

4) 도한호, “『개역』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성경원문연구』 2 (1998), 76-90;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성경원문연구』 2 (1998), 95-96.

5) 도한호, “『개역』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35-38.

6)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72.

7) Ibid., 73.

8) Ibid., 74.

으나, 이미 ‘감수용’을 대동소이하게 유지하며 발간을 결정한 입장에서는 그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성경을 거의 완전히 해체하여 복원해야 할 만큼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태룡(1998)은 ‘개정 작업 원칙’⁹⁾을 제시한 다음 문법(어법), 어휘, 번역(표현)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수정해야 할 곳을 상세히 예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읍소서’체와 ‘당신’, ‘저’ 그리고 ‘이르되’를 거론한 것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지양하고 적정하지 못한 단어나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¹⁰⁾ 온전히 공감이 간다.¹¹⁾

한편 홍근수(1998)는 “『개역개정』의 독자들이 더 이상 1900년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이 아니고 더더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고 과거에 얽매어 있는 보수적인 문헌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¹²⁾ ‘느니라’ 또는 ‘하니라’ 등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오늘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고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주여 내 하인이’를 ‘주여 제 하인이’로 고쳐야 좋겠다는 의견과 멀시조의 의미가 담긴 장애인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 ‘들어올새’를 ‘들어올 때’ 또는 ‘들어오니’로 바꾸어야 낫겠다는 점, 동시행위를 표현하는 어미는 ‘-고’보다 ‘-면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탁견이다. 아울러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은 것도 매우 탁월하다. 다만,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천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개역개정』에 대한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

9) 개정 작업 원칙으로 9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항목 신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국어학과 관련이 깊다.

- ① 문법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②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③ 『개역』 당시 어휘 선택이 현재 그 의미가 바뀌어 오해가 있을 경우 현대 어휘로 고친다.
- ④ 제3인칭 대명사 ‘저’와 ‘저희’는 각각 ‘그’와 ‘그들’로 고친다.
- ⑤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로잡는다.
- ⑥ 준말은 그 원말로 바꾼다.
- ⑦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한다.
- ⑧ 명사나 대명사에서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 소유격과 복수형을 밝힌다.
- ⑨ 오역임이 확실한 것은 바른 번역으로 고친다.

10)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77-88.

11) 필자는 그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았을지라도 이 논문의 곳곳에 그의 견해가 녹아 있다.

12)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95-96.

안을 제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논외로 하고 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어학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고구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개역개정』 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국어학적 연구를 함으로써 앞으로 『개역개정』의 수정번역본의 간행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이어지는 2장에서 본문 분석과 대안 설정을 할 것이다. 2장에서는 형태·구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정서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본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혀낸 뒤 그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마지막 3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추후의 논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본문 분석과 대안 설정

2.1. 형태·구문론적 측면

『개역개정』에서 형태·구문론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고어와 현대어 문체가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애독되기 위해서는 옛 말투 문장을 모두 현대 국어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문법상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¹³⁾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리하여 (1)의 ‘여짜오되’는 ‘반문하였다’, ‘못할진대’는 ‘못하면서’, ‘올새’는 ‘올 때’, ‘나가시때’는 ‘나가시므로’, ‘가사’는 ‘가시어’, ‘본즉’은 ‘보니’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2)도 각각 ‘그리스도이십니다’, ‘건강하여라’로 고쳐야 한다.

- (1) ㄱ. 제자들이 여짜오되(5:31)
 - 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4:13)
 - ㄷ. 예수께서 올새(2:3)
 - ㄹ.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때(2:13)
 - ㅁ.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5:38)
 - ㅂ. 여자가 돌아와 본즉(7:30)
- (2) ㄱ. 그리스도이시니이다(8:29)
 - ㄴ. 건강할지어다(5:34)

13)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72.

『개역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국어의 존대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먼저 ‘-옵소서’ 형이 눈에 띈다. 극존칭 명령형 종결어미인 ‘-소서’는 ‘-쇼서’의 현대 표기로서 존경선어말어미와 겸양선어말어미를 동시에 요구한다. 즉 (3)에서와 같이 ‘-시옵소서’ 형태로 쓰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4)에서처럼 ‘-옵소서’ 형이 자주 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¹⁴⁾

- (3) ㄱ.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14:36)
- (4) ㄱ.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5:7)
 - 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14:36)
 - ㄷ.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10:37)

그리고 (5)에서와 같이 ‘예수’라고 지칭하는 것도 깊이 생각할 만하다.¹⁵⁾ 주격과 여격에서 각각 존경을 드러내는 격조사 ‘-께서’와 ‘-께’가 쓰이고¹⁶⁾ 서술격에서 ‘-시-’가 사용된 것을 보면 대상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언어적으로 표출된 것인 만큼 존경 대상에 존칭접미사 ‘-님’을 붙여 ‘예수님’으로 표현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6)에서도 ‘주님’으로 바꿔 쓰고 (7ㄱ)에서도 (7ㄴ)과 같이 ‘선생님’이란 단어로 정정해야 한다.

- (5) ㄱ.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1:14)
 - 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1:31)
 - ㄷ.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6:54)
- (6) ㄱ. 주가 쓰시겠다 하라(11:3)
 - 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11:9)
- (7) ㄱ.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5:35)
 - 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9:30)

한편 현대어법에서 2인칭으로 쓰이는 ‘당신’은 이미 존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므로 (8)에서 ‘당신’은 ‘선생님’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와는 달리 존경의 의미를 지닌 3인칭대명사는 ‘당신’인데 ‘자기’로 기록된 부분이 자주 보인다.¹⁷⁾

14)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80.

15)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랑”,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238.

16) 전무용, “한국어 ‘이/가’와 ‘-께서’가 나타내는 언어의 응결성과 텍스트성 -창세기 1:1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17) ‘자기’를 모두 ‘당신’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니다. 존경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주체의 재귀대

- (8) ㄱ.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3:32)
 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12:14)
- (9) ㄱ.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13:27)
 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16:14)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주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인칭대명사는 ‘나’가 아니고 ‘저’이며 복수형도 ‘우리’가 아니라 ‘저희’이다.

- (10) 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9:24)
 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14:29)
 ㄷ.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13:3-4)

이와 같이 호칭과 대명사는 현대 국어에 맞게 적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11)은 (12)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 (11) ㄱ.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5:7)
 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10:28)
- (12) ㄱ. 예수님, 저와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ㄴ. 보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2인칭대명사의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대할 때 단수로는 ‘너’, 복수로는 ‘너희’를 사용했다. 그러나 (13ㄷ)에서 ‘애들아’는 비록 제자들을 부르는 말이지만 어른이 된 제자들에게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이 사람들아’ 정도로 옮기면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너’나 ‘너희’라고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14)에서 ‘네’는 ‘자네’로 옮기고 ‘너희’는 ‘여러분’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 ㄱ.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8:33)
 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8:24)
 ㄷ.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10:24)
- (14) ㄱ.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7:29)

명사로 단순한 기능을 할 때도 있다.

- 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15:29)
 ②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15:31)

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5:39)

또한 『개역개정』은 ‘가로되’를 ‘이르되’로 고쳤는데 ‘이르되’는윗사람에게 쓰지 못한다.¹⁸⁾ 따라서 (15)의 ‘소리 질러 이르되’는 ‘큰 소리로 말하였다’, ‘부르짖어 이르되’는 ‘크게 외쳤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15) ㄱ.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1:23)

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3:11)

그리고 지나치게 존경을 나타내려고 (16)과 같이 ‘데리시고’라고 기록한 곳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17)에서처럼 ‘데리고’라고 써야 옳다.

(16) ㄱ.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5:40)

ㄴ.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9:2)

(17) ㄱ.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7:33)

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14:33)

명사형전성어미 ‘-음’을 사용하여 번역한 문장 중 상당수는 현대인에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18)에 보이는 명사형과 이어지는 동사는 ‘깨끗해져라’, ‘나왔다’, ‘불리우리라고’와 같이 동사 한 단어로 표기하고, (19)에 보이는 명사형은 ‘-는 것’으로 옮기며, (20)에 보이는 명사형도 ‘어찌 된 일이냐’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18) ㄱ. 깨끗함을 받으라(1:42)

ㄴ. 다 성함을 얻으리라(6:56)

ㄷ.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11:17)

(19) ㄱ.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4:21)

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9:37)

(20) ㄱ. 이는 어쩐이냐(1:27)

ㄴ. 어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15:14)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두 개의 관형형이 함께 쓰일 경우 앞에 있는 관형형은 부사형으로 바꾸는 것이 현대문법에 더 잘 어울린다. 곧 (21)에서 ‘이러한’과 ‘많은’은 함께 ‘비유’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유연하지 않다.

18)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82.

따라서 부사형 ‘이렇게’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시행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고’로 고쳐야 한다.

- (21) ㄱ.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4:33)
 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14:44)

수량 표현은 마땅히 (22)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23)처럼 번역된 부분이 상당한데 당연히 ‘중풍환자 한 명이’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돼지 큰 무리가’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24)에서 ‘한’은 ‘어느’나 ‘어떤’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ㄱ.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12:15)
 ㄴ. 물 한 동이를 가지고(14:13)
 (23) ㄱ. 한 중풍환자가(2:3)
 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11:13)
 ㄷ. 돼지의 큰 떼가(5:11)
 (24) ㄱ. 한 집에 들어가(7:24)
 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7:25)

현대인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또 다른 예는 호격이다. 과거에 쓰이던 호격 형식을 현대어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25)에서 호격조사 ‘-여’, ‘-이여’를 생략하고 ‘선생님’, ‘아버지’로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26)에서도 ‘예수님’, ‘주님’, ‘선생님’과 같이 격조사가 없는 명사만으로도 부름말이 가능하며, 때때로 호격조사를 쓰긴 하나 형태가 달라 ‘딸아’를 ‘애야’ 정도로 바꾸는 것이 나온 것도 있다.¹⁹⁾

- (25) ㄱ.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4:38)
 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0:17)
 ㄷ.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14:36)
 (26) 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5:7)
 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7:28)
 ㄷ. 예수께 나아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14:45)
 ㄹ.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5:34)

19)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랑”, 239-240.

이뿐만 아니라 격조사가 달리 쓰여야 할 곳이 있다. 즉 (27)에서 분명하게 명사에 여격을 부여하는 격조사는 이전과 달라 ‘자녀에게’, ‘아이에게’처럼 ‘-에게’를 써야 하며, (28)에서처럼 과거 문장에서 관형격을 부여하던 조사는 주격조사로 바꾸어 써야 현대인의 언어상황과 부합되므로 ‘너희가’, ‘내가’로 고쳐야 한다.

- (27) ㄱ.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7:27)
- 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9:26)
- (28) ㄱ.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4:24)
- 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9:24)

또한 격조사를 삽입하여 원만한 문장 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29)에서 ‘네가’, ‘잎사귀가’처럼 주격조사를 밝혀 적고, ‘일을’처럼 대격조사를 삽입하면 훨씬 문장 구성이 탄탄해진다.

- (29) ㄱ.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5)
- 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11:13)
- ㄷ.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 보시니(5:32)

이 밖에도 번역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 보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곧 (30)에서 ‘대답하시되’ 앞에와 ‘이르시되’ 앞에 주어인 ‘그분께서’를 밝혀 적는 것이 옳바르다.

- (30) ㄱ.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3:33)
- 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4:11)

아울러 명령형 종결어미도 올바르게 써야 한다. 즉 (31)에서는 ‘믿어라’, ‘들어라’로 고쳐야 하며, (32)에서도 ‘가거라’, ‘사랑하여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33)에서 명령형은 ‘배워라’, ‘앉아 있어라’로 바꾸고, (34)에서도 ‘줘라’, ‘뱌라’와 같이 축약형을 쓰거나 ‘주어라’, ‘보아라’와 같이 원형을 써야 한다.²⁰⁾

- (31) ㄱ. 믿으라 하시더라(11:15)
- ㄴ. 이스라엘아 들으라(12:29)

20) Ibid., 243.

- (32) ㄱ. 평안히 가라(5:34)
 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12:30)
- (33) ㄱ.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13:28)
 ㄴ. 내 우편에 앉았으라(12:36)
- (34) ㄱ.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5:34)
 ㄴ.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15:35)

한편 사소한 것이긴 하나 명사류와 명사류를 함께 일컫을 때 부사보다는 공동격조사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호흡이 끊이지 않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공동격조사를 사용했을 때에는 또다시 ‘및’을 덧붙여 쓰는 것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고 거주장스러운 뿐이다. 또한 한문을 언해할 때처럼 성경을 번역할 때도 굳이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대명사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종종 ‘이’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35) ㄱ.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2:16)
 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2:25)
 ㄷ.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5:43)

2.2. 의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논의할 사항은 어려운 한자어 사용 문제이다. 『개역개정』의 원칙상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나 한자어는 쉬운 말로 고쳤다고 『개역개정』의 해설에서 밝혔지만 아직도 어려운 고어와 한자어가 많이 발견된다. 더 쉬운 한자어로 바꾸거나 아예 고유어로 옮기면 더욱 좋은 번역문이 될 수 있는 곳이 허다하다.²¹⁾

(36)에서 ‘심히’는 ‘매우’나 ‘몹시’로 바꾸고, (37)에서 ‘완악함’은 ㄱ에서 ‘굳어진 것’으로 옮기고 ㄴ에서는 이어지는 구와 더불어 ‘굳어졌기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나으며, (38ㄱ)과 (38ㄴ)의 ‘축사하시고’는 이미 잘 번역되어 있는 (38ㄷ)을 고려하여 ‘축복하시고’로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 (36) ㄱ.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4:41)
 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5:38)
- (37) ㄱ.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3:5)
 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10:5)

21)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83-86.

- (38) ㄱ.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6:41)
- ㄴ. 떡 일곱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8:6)
- ㄷ.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14:22)

이와 함께 ‘-로 인하여’는 ‘-로 말미암아’ 또는 ‘때문에’로 옮기고, (40ㄱ)의 뒷부분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로 바꾸고, (40ㄴ)의 ‘임하여’도 ‘내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41)에서 ‘사하심을 얻지’류는 ‘용서를 받지’로 수정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유익하다.

- (39) ㄱ.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4:17)
- 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앓은 자들로 인하여(6:26)
- (40) ㄱ.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9:1)
- ㄴ.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15:33)
- (41) ㄱ.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3:29)
- 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4:12)

아울러 (42)에서 명사류인 ‘우편’은 ‘오른쪽’, ‘좌편’은 ‘왼쪽’, ‘전토’는 ‘논밭’, ‘군호’는 ‘신호’, ‘검’은 ‘칼’로 옮기고 ‘몽치’는 더 쉬운 고유어인 ‘몽둥이’로 바꾸는 것이 옳바르다.

- (42) ㄱ.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10:37)
- ㄴ.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10:29)
- ㄷ. 군호를 그가 이르되(14:44)
- ㄹ. 검과 몽치를 가지고(14:43)

한편 (43)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사류는 각각 ‘논쟁하였다’, ‘폐기하여’, ‘머물러라’, ‘조용히 하라고 하나’, ‘섬기었다’, ‘일하시어’, ‘넘어지게’, ‘속이려’, ‘항의하므로’로 교체하여야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

- (43) ㄱ.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9:34)
- 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7:13)
- ㄷ.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6:10)
- ㄹ. 잠잠하라 하되(10:48)
- ㅁ.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1:13)
- ㅂ.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16:20)

- ㅅ.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9:42)
- ㅇ.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13:22)
- 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8:32)

그 외에 (44)에 보이는 ‘홀연히’는 ‘갑자기’로, ‘많은 고로’는 ‘ 많으므로’ 또는 ‘ 많기 때문에’로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

- (44) ㄱ.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13:36)
- 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10:22)

그런데 한자어를 쉬운 고유어로 풀어 쓰려는 노력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말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천국’을 옮긴 것인데 독자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자’도 신학적인 근간을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유사하게 ‘사람의 아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 (45) 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4:11)
- 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9:1)
- (46) ㄱ.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8:31)
- 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8:38)

아울러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라 하더라도 현대인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나 구를 바꿀 필요가 있는 곳도 간간이 눈에 띈다. (47)은 부사어로 ‘즉시로’를 ‘즉시’, ‘당돌히’를 ‘당돌하게’로 교체하여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며, (48)은 동사류로 ‘도망하고’를 ‘나와 달아나’로, ‘만족을 주고자 하여’를 ‘만족시키려고’로 바꾸어 원만한 문장이 되게 하고, (49)는 실제 언중이 쓰고 있는 단어에 주목하여 ‘옷 가’를 ‘옷자락 술에’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각각 ‘첫째’와 ‘끝째’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47) ㄱ.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9:39)
- ㄴ.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15:43)
- (48) ㄱ.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16:8)
- 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15:15)
- (49) ㄱ.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6:56)
- 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10:31)

이와 더불어 현대 독자들의 독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에 쓰이던 시각 표현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야 한다. 즉 (50)은 각각 ‘새벽녘에’, ‘오전 아홉시가 되어’, ‘정오가 되어’로 고쳐야 한다.

- (50) ㄱ. 밤 사경쯤에(6:48)
- ㄴ. 때가 제삼시가 되어(15:25)
- ㄷ. 제육시가 되매(15:33)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의 번역은 신중해야 한다. 그 동안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단어들은 공공기관의 문건에서나 공공단체의 발언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51)과 같이 병명이나 장애인의 명칭을 그대로 쓰거나 (52)처럼 장애의 양태를 곧이곧대로 풀어쓴 것이 대부분이며, (53)처럼 ‘장애인’이란 용어를 쓴 곳은 단 한 군데이다.

- (51) ㄱ.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1:40)
- 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8:22)
- ㄷ. 맹인이 걸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10:50)
- (52) ㄱ.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3:1)
- 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7:32)
- ㄷ.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7:37)
- ㄹ. 다리 저는 자(9:45)
- (53) ㄱ.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9:43)

장애인이 (51)과 (52)와 같은 단어나 표현을 싫어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체부자유자’,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으로 부르는 것이 도리이며, 그토록 장애인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²²⁾

한편 동음어 ‘곧’은 ‘바로’, ‘금방’, ‘곧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가설명어 ‘곧’으로도 쓰인다. 따라서 이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54ㄱ)에서 ‘곧’은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를 꾸미므로 ‘하늘’ 앞으로 옮겨야 하며, (54ㄴ)에서도 “그물을

22)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랑”, 242;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94.

버려 두고” 뒤에 ‘곧’이 놓여야 한다. 그리고 (54ㄷ~ㄱ)에서 ‘곧’은 ‘곧장’이나 ‘곧바로’로 바꾸고, (54ㄴ)에서는 ‘곧’을 삭제하고 “배에서 나오시자마자”로 고쳐야 한다.²³⁾

- (54) ㄱ.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서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1:10)
 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1:18)
 ㄷ. 그물을 낚는데 곧 부르시니(1:20)
 ㄹ.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1:30)
 ㅁ.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5:42)
 ㅂ.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5:2)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자(者)’는 (55)에서와 같이 가치상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²⁴⁾, 현대어에서는 낮춤말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단어로 옮기는 것이 낫다. 곧 (56)에 나타나 있는 ‘자’는 (57)과 (5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 (55) ㄱ.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4:25)
 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10:14)
 (56) ㄱ.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4:3)
 ㄴ. 곧 넘어지는 자요(4:17)
 ㄷ.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4:19)
 ㄹ.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4:20)
 (57) ㄱ.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5:22)
 ㄴ. 이들을 가리킴이니(4:15)
 (58) ㄱ.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5:2)
 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5:14)

이와 아울러 정확한 의미 전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의미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변화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59)의 ‘표적’으로 이는 ‘표징’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 나

23) 부가설명어 ‘곧’은 여러 군데에서 정확히 기술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5:15)
 ②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12:29)
 ③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14:3)

24) (55ㄱ)에서 ‘자’는 단순히 ‘사람’을 일컫고 (55ㄴ)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뿐 의미상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성서 독자들은 ‘표적’이라는 단어에서 ‘과녁’을 연상하지 ‘표징’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와 같이 (60)에서도 ‘외식’은 ‘가식’이나 ‘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 밖에서 하는 식사’를 떠올리기가 쉽다.

- (59) ㄱ.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8:11)
- 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8:12)
- (60) ㄱ.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7:6)
- 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12:40)

또한 의미가 매우 비슷하긴 하나 동의어 또는 유의어로 간주되기 어려운 단어는 그 용법을 고려하여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즉 (61 ㄱ)에서 ‘변형’은 사물의 모양이 바뀌는 뜻일 뿐 인간적인 면모의 변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변모’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하며²⁵⁾, (61 ㄴ)에서 ‘탄식하시며’는 ‘근심하여 한탄하며’라는 뜻이 아니기에²⁶⁾ ‘한숨을 내쉬며’로 옮기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62)에서 ‘권위’는 ‘권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61) ㄱ.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9:2-3)
- 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7:34)
- (62) ㄱ.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1:33)
- 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11:28)

2.3. 정서법적 측면

『개역개정』에서는 독자들이 쉽사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단의 내용이 바뀌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63)에서와 같이 시편에서 인용한 구절을 들여 써서 시각적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 (63) ㄱ.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12:10)
- 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12:36)

2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2656-2664;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1769-1773.

26) 『개역개정』에서 그 뜻을 잘 드러낸 부분도 있다.

- 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3:5)
- ② 예수께서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8:12)

그러나 이 외에 문장의 이해에 필요한 구두점은 거의 없다. (64)에서와 같이 대등한 표현이거나 반복 표현에서 쉼표가 다섯 군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번역인은 그 필요성을 은연중 인지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장부호를 쓰지 않기로 한 번역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 (64) ㄱ.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8:28)
 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13:32)
 ㄷ.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13:35)
 ㄹ.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15:27)
 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15:34)

사실상 문장부호를 쓰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꾼 것과 더불어 현대 국어 정서법에 맞는 각종 부호도 생략하지 말고 올바르게 써야 옳다.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품위가 있거나 과거 회귀적인 것이 여긴 것은 그릇된 것이다. 문장부호가 없는 현대 국어 서적을 상상할 수 없듯이 현대인이 사용하는 성경도 독서의 속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땅히 적절한 문장부호를 문단과 문장에 사용해야 한다.²⁷⁾

그리고 본문에서 일정한 크기의 활자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활자가 작아진 곳이 몇 군데 발견되는데 (65)의 경우에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66)의 경우는 작은 활자가 오히려 전후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65) ㄱ.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²⁸⁾ 레위가(2:14)
 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3:17)
 (66) ㄱ.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1:45)
 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7:11)
 ㄷ.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14:23)
 ㄹ.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14:72)

한편 『개역개정』은 띄어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극히 일부분에서 오류를 범했을 뿐 거의 모든 곳에서 국어 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오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부분이다.

27)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도한호, “『개역』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38;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92.

28)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작은 활자로 쓰인 곳이다.

이 번역본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으나 (67)에서와 같이 붙여 쓴 곳이 있으며, ‘시간이 얼마 지속되었음’을 뜻하는 ‘만’이 명사인 까닭에 띄어 써야 마땅하나 (68ㄷ)에서처럼 미처 교정을 놓친 부분이 있다.

- (67) ㄱ.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10:4)
 - 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12:26)
- (68) ㄱ.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8:31)
 - ㄴ.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10:34)
 - ㄷ. 죽은 지 삼 일만에(9:31)

그리고 두 단어로 나누어 취급하기보다 의미상 한 단어로 굳어진 단어로 간주하여 띄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점에서 (69ㄷ)과 (69ㄷ)은 ‘들어가는’과 ‘한가운데에’로 고쳐 써야 한다.

- (69) 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10:23)
 - 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10:25)
 - ㄷ. 영생에 들어 가는 것이(9:43)
 - ㄷ.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3:3)

그 밖에 (70)에서처럼 조사 ‘-같이’를 띄어 쓴 것이나, (71)에서와 같이 접미사 ‘-하다’를 명사 뒤에 이어 써 동사형을 취하지 않고 띄어 썼는데 이런 방식을 고수하려면 차라리 명사 뒤에 대격조사 ‘-을’을 넣어 (72)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 (70) ㄱ.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9:26)
 - ㄴ. 강도를 잡는 것 같이(14:48)
- (71) ㄱ. 거짓 증언 하지 마라(10:19)
 - ㄴ.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11:28)
- (72) ㄱ.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10:19)
 - 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11:28)

3.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개역개정』을 국어학적인 면 즉 형태·구문론적 측면, 의

미론적 측면, 정서법적 측면에서 고구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형태·구문론적 측면에서 『개역개정』은 고어 문장과 현대어 문장이 뒤섞여 있어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옛 문장으로 통일할 경우 반드시 당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살려 써야 하지만, 현대 국어로 옮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극존칭 명령형 종결어미인 ‘-소서’는 존대선어말어미 ‘-시-’와 겸양선어말어미 ‘-옵-’과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문장은 국어 존대법에 어긋나지 않은 형태와 구문을 유지해야 한다. 곧 존칭주격조사 ‘-께서’는 주어가 존경의 대상이므로 ‘예수’보다는 존칭접미사 ‘-님’이 첨가된 ‘예수님’이 낫고, 2인칭대명사 ‘당신’엔 더 이상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함께 쓰일 수 없으며, 겸양법에 따라 ‘나’나 ‘우리’ 등은 ‘저’와 ‘저희’ 따위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르되’도 손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조사의 사용에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수량 표현도 ‘한 무화과나무’ 형식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한 그루’와 같이 써야 온당하다. 마지막으로 명령형 종결어미도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미론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모두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꿔 써야 한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그렇게 하려고 곳곳에서 애를 썼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도 현대 한국어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체해야 하며, 장애인을 일컫는 용어도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음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단어로 대치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변화를 수용하여 ‘자(者)’를 ‘사람’이나 ‘이’로 바꿔야 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외식’, ‘변형’보다는 ‘가식’, ‘변모’ 따위로 옮겨야 한다.

셋째로, 정서법적 측면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면 마땅히 필요한 곳마다 제대로 된 문장부호를 써야 한다. 또한 몇 군데에서 보이는 작은 글씨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다소 도움을 주며, 워낙 띄어쓰기에 신경을 써 거의 틀린 곳이 없으나 미처 손을 보지 못한 부분이 간간이 눈에 띄어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수정본을 간행할 때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마가복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전서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우리말 성경을 더욱 친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바르고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가까이 하며 진정으로 ‘기쁜 소식’에 크나큰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한글성경, 국어학,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Bible translation, Holy Bibl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Korean Revised Versi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투고 일자 : 2011. 1. 25; 심사 일자 2011. 2. 25; 게재 확정 일자 : 2011. 3. 8)

<참고문헌>(References)

(1) 성경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2)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3) 연구논문 및 저서

- 김정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검토”, 『성경원문연구』 2 (1998), 70-74.
김태룡,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성경원문연구』 2 (1998), 76-90.
도한호, “『개역』 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 『성경원문연구』 2 (1998), 19-4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박영환, “기독교인의 우리말 사랑”,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235-247.
전무용, “한국어 ‘이/가’와 ‘-게서’가 나타내는 언어의 응결성과 텍스트성”, 『성경원문연구』 22 (2008), 161-179.
홍근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성경원문연구』 2 (1998), 91-96.

<Abstract>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Prof. Young-Hwan Park
(Han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in terms of Korean lingu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erroneous translations found in NKRV based on Korean linguistic aspects and lay the foundation to publish a better version of NKRV, which would provide a friendly access to its text and satisfy modern readers.

The study comprises three major aspects, i.e. morpho-syntactic, semantic, and orthographic aspects with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rchaic and modern sentences are morpho-syntactically confounded, which needs to be unified. If they are unified to archaic sentences, each word ought to comply with lexical rules. Along with it, the ultra-honorific imperative ending, ‘-소서’ needs to parallel the honorific prefinal ending, and the humble prefinal ending. In other words, it should read as ‘-시옵소서’. In addition, these forms ought to comply with honorific rules. To take ‘예수’ for an example, the honorific subject case ending, ‘께서’ needs to be rewritten as ‘예수님’. Since Jesus deserves to be honored, the honorific subject case ending, ‘님’ ought to be affixed to ‘예수.’ Thus, ‘예수님’ is preferable. The second personal pronoun, ‘당신’ has no implication of honor and must not be affixed together with the honorific subject case ending. Thus, ‘나’ and ‘우리’ must be replaced with ‘저’ and ‘저희’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humbleness. Furthermore, ‘이르되’ which means ‘to say’ can not be used toward senior hearers. The vocative case ending ‘-여’ is not used in modern times, and ‘랍비여’ and ‘주님’ ought to be changed to ‘선생님’ and ‘주님.’ Differences in the usage of particles ought to be recognized. As for quantitative expressions, ‘한 무화과 나무’ ought to be rewritten as ‘무화과 나무 한 그루.’ The noun formational ending, ‘음’ or ‘기’ conjoined with dependent nouns needs to be replaced with ‘-는 것’ to make sentences more natural.

Secondly, in view of semantics, Chinese characters which are difficult to decode need to be changed to easy Chinese or native vocabulary in spite of translators’

efforts in many ways. Words representing ‘time’ need to be changed to a proper one to enable modern readers to comprehend. Words signifying ‘the disabled’ need to be changed to appropriate ones so that they will not evoke unpleasant feelings. In addition, alternative translation is required as a means of preventing confusion from the use of homonyms. ‘자’ needs to be changed to ‘사람’ or ‘이’ in compliance with semantic change. Lexical selection requires prudence in cases such as ‘외식’ and ‘변형’, which need to be replaced with ‘가식’ and ‘변모’.

Finally, it seems extremely erroneous in terms of orthography that punctuation marks are not used at all. Legitimate (Appropriate) punctuation is required for modern readers if appropriate forms are necessary. Small letters are helpful to understand some vocabulary. However, there are minimal mistakes in word spacing despite meticulous proofreading.